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원교회)

이승이, 강평화, 김경상(김해숙), 김누리현, 김미희, 김영성, 김윤주, 김정녀, 김정자, 김종선(박영숙), 김진희, 김창길, 김춘화, 김현구(서재희), 김형국(이오순), 박순웅(이승애), 박희재, 방현옥(신영선), 배경철(김순희), 백근영(윤 숙), 백성원(안지영), 서진화(최봉순), 석애자, 송형기(김현숙), 신동록(문수경), 오택현, 윤승현(민옥희), 윤영준(박진숙), 이영순, 이항교, 정윤주(김현진), 전순봉, 주경옥(이경자), 채영길, 최상길(이미향), 최봉권, 허봉선, 류승우.(총38명)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원교회)

강봉석, 김경상(김해숙), 김성옥, 김지자, 김경환(임영미), 김한나, 김희규, 박부흥(최귀남), 박영순, 박춘자, 방현옥(신영선), 백근영(윤 숙), 백성원(안지영), 석애자, 윤승현(민옥희), 이영순, 이옥남, 임형문(박국옥), 전순봉, 채영길, 채희춘(황영옥), 최상길(이미향), 최봉경, 허봉선.(총24명)

♣ **감사헌금**

이진우, 이필례, 김병율(이영숙), 김순옥, 김경연B, 김춘화, 맹지혜, 민옥희, 박금업, 박춘자, 박부흥(최귀남), 방석태(차옥자), 윤영준(박진숙), 이경자, 이은경, 이춘휘, 장윤주, 전순봉, 전봉구(이인숙), 정영심, 채영업, 최봉순, 최선미, 허봉선, 황영옥, 현복자, 윤봉권.(총28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이필례, 김민성, 김수현, 김경선, 김준현, 김지훈, 김형숙, 김춘화, 민옥희,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영, 이설아, 이옥남, 정옥순, 주성탁, 최귀남, 최봉순, 최선미, 황영옥, 김민혁, 무영.(총38명)

♣ **월정헌금**

류영철(김정숙), 박춘자, 이영숙.(총3명)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제45주: 잠언 12장 1절 - 15장 33절			
주 일	잠언 12장 1 - 23절		
월요일	잠언 12장 24절 - 13장 11절	목요일	잠언 14장 17 - 35절
화요일	잠언 13장 12 - 25절	금요일	잠언 15장 1 - 15절
수요일	잠언 14장 1 - 16절	토요일	잠언 15장 16 - 33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조춘 방석태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옥 장영원 이해석 정광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교역자	부목사	윤희진 김성종	
	전도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승이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 루아 : 김한나 시온 · 에덴 : 최원자	호산나 : 김안나 겔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해윤	
		피아노 강민주 김미희 김상훈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박선희 고광훈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열 이성옥 미국: 김다니엘 미국: 최옥희	이집트: 김선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옥 A X 국: 박동권 김명화
	협력선교사	태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태국: 박정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동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11. 1 주일 예배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확증하는 법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설교: 이진우 목사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더욱 확인이 필요함니다. 영적으로 존학하며 진리가 흐려지는 이 시대에 성도는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확증하여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확증할 수 있습니까?

1.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표적이 따르며 은혜가 더욱 풍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18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동일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그 마음이 자라나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에베소서 4장 13절). 아직 못한 자아가 살아 성령을 거스르고, 말씀을 거역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된 성도, 참 된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매일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중심에 모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악해져 가는 시대 더욱 믿음의 사람들로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말씀이 충만한 자는 주님이 충만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되는 방편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믿고 구하면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바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듣고 깨달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함을 통하여 구원의 지혜를 증거하는 자.”고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듣고, 말씀을 기억하며, 바로 배우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참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한 흔적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2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을 지켜 사는 삶 가운데 당했던 모든 고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이 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경제의 어려움, 육체의 연약함,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각기 외적인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믿음을 흔들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도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불어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오늘날도 우리가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받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낙심하고 실망하며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이 고난의 흔적이 바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 는 것을 증거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며 더욱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는 참 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1 - 45

2015. 11. 8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이지: www.sunghyeon.or.kr

